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스타트~'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5년 연속 선정된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길이 2.8km와 폭 40~60m로 세계 최장·최고를 자랑하는 국가 지정

## 진도군,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체계적인 준비

명승 제9호에서 열리는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동안 개최된다. 축제 준비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신비의 땅을 울려라' 북놀이 퍼레이드 300명 참가자 모집 등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Killer Contents(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지역 고유의 민속 문화 불거리와 체험 코너 등을 늘리고 국내·외 홍보도 강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 전통 민속문화 공연, 대한민국 국경 진도개 체험, 천년의 색을 간직한 진도홍주를 축제를 통해 직접 만나 볼 수 있으며, 마지막날 야간에는 워터스크린 멀티미디어쇼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통역 안내음식?공연?체험을 한국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존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외국인 모객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 사전 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해 외국인 수용 대책에 대한 점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

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어 2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 받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축제 개최시 체계적인 준비와 내실 있는 체험행사, 공격적인 홍보 등으로 외국인 5만명 등 52만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급성장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축제 공간을 전통 민속문화공연, 전시, 체험 등 테마별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실시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바닷길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며 머물고 갈수 있는 축제에 개 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무안군,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무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노후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가로등 등의 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그 밖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은 가급적 세대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노후도, 과거에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 전용면적의 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1. 18.자로 공고한 무안군 홈페이지 및 K-apt에 게시된 "2018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 할 것을 주문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늘푸른 난대숲' 완도자연휴양림 다음달 개장

### 4년간 52억원 투입...다도해·일출 경관 조망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52억 원을 들여 늘 푸른 난대숲에 조성해온 완도자연휴양림이 2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완도자연휴양림은 숲 속의 집 10동 규모로 112㎡(34평)형 2동, 49㎡(15평)형이 8동으로 이뤄졌다. 객실 내부는 모두 편백으로 꾸며졌고 대부분의 객실은 남향으로 완도의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난대상록활엽수림 자생지인 완도수목원과 정점 바다가 어우러진 곳에 위치하

고 있고 늘 푸른 숲에서 4계절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한껏 마실 수 있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국내 제일의 휴양명소가 될 전망이다. 해발 340여m에 자리잡은 완도자연휴양림은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770종의 난대 수종이 자생하는 완도의 명산 상왕봉을 품고 있어 전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완도자연휴양림은 기존 산중에 위치한 휴양림과는 달리 탁 트인 지중해풍 경관을 가진 국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에 매력요소로 객실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떠오르는 일출과 아름다운 다도해경관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숲속의 집, 물놀이장, 전망원터, 산책로 등도 갖춰 난대 숲을 맘껏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숲속의집 이용요금은 1일 기준으로 1가족실(49㎡, 5인 기준)이 비수기는 8만 원 성수기 및 주말은 10만 원, 다가족실(112㎡, 10인 기준)이 비수기는 16만 원, 성수기 및 주말은 18만 원이다. 이용 예약은 25일부터 인터넷 누리집(<http://forest.jornam.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550-3531, 3570)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52억 원을 들여 늘 푸른 난대숲에 조성해온 전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이 2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 장흥군, AI 방역초소 근무자 독감 예방접종 320명에 실시...31일까지 20개 이동 방역초소 운영

장흥군은 최근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동초소 근무와 관련해 근무인원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독감 예방접종은 AI 이동초소 근무에 나선 공무원과 민간인 32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접종은 장흥군보건소와 보건지소 8곳에서 실시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장흥군은 이번 백신접종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백신 320도즈를 긴급 진도 받아 접종에 나섰다. 한편, 장흥군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상황을 국가비상재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지역 20개 가급 시육농장 앞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개 방역초소에는 매일 150명(공무원 75명, 민간인 75명)이 투입돼 농가 진출입 차량 및 인력 통제, 소독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흥=김홍필 기자



## 따뜻한 여수시, 동계 전지훈련지 '인기'

1월 현재 92개 팀 2132명. 연평균 기온이 13.5도로 온화한 여수가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가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여수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야구, 농구, 축구, 태권도 등 92개 팀 2132명이다.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은 야구다. 서울 역삼초등학교 등 32개 팀 987명의 야구선수들이 지난 1일부터 여수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오는 26일까지 여수시 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스토브리그 대회에 참여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주고등학교 등 10개 농구팀도 전지훈련지로 여수를 택했다. 507명의 농구 선수들은 지난 8일부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전주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광주고등학교 농구 선수 6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여수를 찾아 이달 17일까지 훈련을 마쳤다. 이외에도 태권도 431명, 롤러 59명, 축구 56명, 육상 17명, 테니스 11명 등이 여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동계 전지훈련 유치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17억 원 규모로 분석하고 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